



“문화인으로 거듭나는 계미년 열어가자”

배기선위원장 김영수회장 등 3백여명 참석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광득룡)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고수곤) 서울경인쇄정보조합(이사장 김학규) 공동 주최의 '2003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9일 오후 5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인쇄문화회관 강당에서 배기선국회문화관광위원장, 김영수중소기업중앙회회장과 관련단체장, 3백여명의 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계미년을 맞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인쇄문화 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재기회장의 인사말, 배기선위원장 김영수회장의 축사, 케익절단, 광득룡회장의 건배 순으로 진행됐다.



▲ 광득룡(왼쪽에서 4번째)회장이 건배를 제창하고 있다.



▲ 민재기 회장이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배기선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영수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2003년 인사회에는 여성경영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민재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우리 업계가 기능인력난과 물량부족, 자금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인쇄단체와 뜻있는 인쇄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도 적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인쇄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기술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난관극복을 위한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회장은 이어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새해를 맞아 더욱 심기일전하여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인쇄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진정한 문화인으로 거듭나는 계미년을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배기선 국회문화관광위원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1377년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인쇄하여 지난해 유네스코로부터 인쇄 종주국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오늘날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인쇄인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금속활자를 창조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인터넷을 발전시킨 민족으로서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위원장은 또 “지난해 7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의지를 나타냈다”면서 “앞으로도 방관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쇄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앙회와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1,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은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판매난이 심해 기업인 80%가 2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며 54%가 해외로 이 전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서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말씀드렸더니 자세하게 더 준비해 달라고 하신 만큼 차기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득룡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계미년 새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인사회에는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명단이다.

배기선 국회문화관광위원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심 한국잡지협회회장, 광득룡 인쇄연합회회장, 고수곤 서울인쇄조합이사장, 김학규 서울경인쇄조합이사장, 박충일 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허철중 인쇄문화협회전회장, 이일수 인쇄문화협회전회장, 채복기 인쇄연합회전회장, 김지승 인쇄연합회전회장, 김종수 한국출판조합이사장, 전덕수 제책조합이사장, 하계민 부산인쇄조합이사장, 이원근 경기인쇄조합이사장, 유근호 대전충남인쇄조합이사장, 안경식 청량음료조합이사장, 유경상 육군인쇄창창장, 홍우동 인쇄연구소소장, 한용근 인쇄문화협회부회장.

